



인천시, “시민의 날 기념, 자랑스러운 99명 모범 시민 표창”

인천광역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0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시민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표창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99명의 시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요 수상자로는 △지난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한 인천서부소방서 소속 양승용 소방위, 남성우 소방위, 신재형 소방장과 성춘희 대장을 비롯한 의

- ▶ 청라 전기차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자 등 표창
- ▶ 유정복 시장, 인천 발전 이끈 시민 헌신에 감사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 [사진 제공=인천시]

용소방대원 11명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쓴 길병원 고의원 조교수, 인하대병원 백진휘 권역응급

의료센터장, 인천광역시의료원 김진미 행정처장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진 환자를 응급

처치하여 구조한 성리중학교 송민재 학생 △30년 이상 시부모님을 간병하며 헌신적인 가족 돌봄을 실천한

박유경, 김중수 시민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산업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청소년, 농·어민, 군인, 경찰, 집배원, 이·통장 및 선형 시민 등 18개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이들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범적인 시민 의식이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 시민의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문미순 기자

유정복 시장 향해 ‘보조금 횡령 적발 단체’ 공무중단 촉구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인천연대 창준위(위원장 김민정)는 최근 인천시 고주봉 시장 비서실장에게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결과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무 활동 제한’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시장에게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보조금 횡령 결과를 인천시민들에게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2주가 지났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라며 “인천시장이 부도덕하고 위법한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거나 감싸려는 게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

조금 등의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 1원이라도 사익을 위한 편취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시민단체들이 시민 혈세를 불공정하고 위법하게 사용하는 등 불법·탈법 행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실로 충격적인 시민단체의 ‘도덕성 훼손’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공정 인천연대’는 지난 8일,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의 불법 집행,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락 수사, 봐주기 수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

에,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부도덕한 시민단체 관련자들 ‘공무 활동’ 등을 제한하라는 건의문도 전달했는데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시장은 일언반구가 없다고 비토했다.

‘공정 인천연대’는 “인천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의 탈을 쓴 혈세 도둑을 인천시청에서 즉각 배제하라. 끼리끼리 시민 혈세를 나눠 먹은 시민단체들, 즉시 보조금 환수하고 영원히 퇴출을 시키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부도덕한 시민단체의 민낯을 시민들과 행정에 알리고, 상응하는 인천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면담 요구를 즉각 수용



인천시청 앞에 건 혈세 도둑 현수막 수개 중 일부 전경

을 촉구하면서 또다시 응답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 감사실은 전화통화에서 지금 전화를 받아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했다.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과 대치가 되고 있다. 일괄적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조속히 창구 통합하

라는 비난도 함께 뒤따르고 있다.

아울러 감사실 자체도 언론과 접촉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문제점을 즉각 답변하지 못해 공무 배제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풀이돼 도둑을 집안에서 내보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는 감사행정이 엉망이란 소리가 들리고 있다.

/김양홍 위원, 문미순 기자

사설 송도국제도시, ‘토지매각대금’ 문제로 들쭉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에 송도국제도시 토지매각 수입 중 8000억 원이 영동한 지역으로 투입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연수구의회 등 지역민 반발은 뜨거워 논란이 일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 토지를 매각한 내 돈을 송도국제도시 교통 인프라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토지매각 수입은 인천경제청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송도, 청라, 영종 등에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충돌과 송도국제도시 송도 매립 수입은 전체 구도심 인천발전을 위해 사용하라는 구도심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이 아니냐는 굵지 않은 시선은 송도 주민들이 너무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소리다. 실제 송도국제도시로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은 소외가 컸다는 것이다.

인천시민들 대다수의 중론인데

그만큼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두고 박수와 불만은 늘 곁이 달라 송도국제도시 중·상류만을 위한 구역으로 분류됐다고 빈부 격차에 불만은 크다. 인천시민들의 불만은 균형발전이란 화두인데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비판은 만만치가 않다. 송도의 주거비용은 이제 인천의 강남이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택 가격도 인천에서 3~5배 격차가 커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수익 구조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주거도 힘든 상태가 됐다.

이와관련, 다른 지역과의 임대주택 결과는 송도 민간 분양과 달리 뒤따르지 않은 것은 사업 구조상 고비용을 지출하는 토지비용은 서민층이 주거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이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시민의 이유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치려야 할 몫이 커졌다는 것이다. 토지매각대금은 아파트 분담금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라고 한다.

토지매각대금을 송도에 투입하라는 이기주의에 오히려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는 원성까지 더해지며 더 누리려는 과욕을 두고 혹을 띠려다 혹이 붙는 꼴이었다고 한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생활의 여유로움과 구도심 불만 속에서 토지매각대금 사용이 터졌는데 송도 개별 매립으로 거대한 도시가 탄생까지 인천지역 주민들 세금도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과 같은 인천광역시의 정책이 뒤따른 하나의 비즈니스 사업이 됐고, 반면 송도 주민들은 좋은 환경에서의 삶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누리는 부러움의 셈법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남동구(간석동)·부평구·미추홀구·동구·중구 등 구도심 주민들은 열악한 인프라에 인내했다. 균형발전 전선을 넓히라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력으로 보답하라고 한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사업 지원 발표

인천광역시는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 자율제조’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로봇과 장비를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의 고도화 및 자율화를 실현하는 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의 과제는 ‘반도체 CMP DISK(화학기계적 연마 디스크)의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기반 시스템 개발’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53억 원을 지원받는다. 총사업비 100억 9000만 원(국비 53억 원, 시비 15억 9000만 원(국비×30%), 민간부담 3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반도체의 CMP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가 테이블 위에 놓인 ‘패드’ 위에서 용액과 압력을 통해 화학적(Chemical)·기계적(Mechanical)으로 연마(Polishing)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CMP DISK가 사용된다. CMP

DISK는 머리카락 굵기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약 6만 개 정도 부착된 제품으로 CMP 공정에 사용되는 ‘패드’의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가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CMP DISK의 다이아몬드 크기 분류, 배열, 도금, 불량 검사 등이 주로 수작업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인공지능(AI) 자율공정 전환을 통해 50% 이상의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가 기대된다.

이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신한다이아몬드공업(인천 남동구 소재)은 CMP DISK 생산 업체로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자율제조 공정을 위한 로봇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부리기술연구소(인천 연수구 소재)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몬드리안에아이(인천 연수구 소재)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통합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다. /문미순 기자